



우리들교회 주일예배 생방송 | 2025.08.03

제목: 다시 시작하는 힘

본문: 사사기 16:15-31

설교: 김영수 목사 (브리즈번한인장로교회)

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8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꺾 의지하고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이성훈 목사님:

구속사의 시작점은 걸리는 순간입니다. 계속 걸리다 보니 별인생 없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명문대 치과의사도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것... 하나님 떠나면 기본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거구요. 결국 열등감은 욕심입니다. 결핍과 욕심이 만나면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있으니 섬기고 분량만큼 사명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열등감 극복은
 공동체에서 양육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김영수 목사님:

큐티하시니 뷰티하시고 부티나보입니다.
 큐티의 정의를 큐하실때 티없이 사는 것이 큐티다.
 결혼은 흥잇는 남자와 00가 잇는 여자가 만나서 살면서 흥모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 예수구주를 티내며 사는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본문에서 삼손의 반면교사와 진면목을 보는 진면교사를 보며 왜 힘을 잃고 왜 힘을 얻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린 이유는

1. 세상에 떠밀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슈퍼히어로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약은 포도의 산물을 멀리하고, 죽은 시체 등 부정한것 손대지
 않고, 머리카락 자르면 안되는 구별성이며 세상과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호기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외모 꾸미지 못하는 이 삶이 쉽지 않음을 겁니다.
거북한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었으니 조그만 장난이나 기준에 벗어나면 넌 나실인이야.... 하는 지적...
에 삼손은 애어른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많고 사람의 시선에 의해 행세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말에 억지로 적응하고 잊었겠죠...

나실인의 규약을 적용한것이 아니라.. 적응하였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때문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 있죠...

적용이 안되니 자기눈에 편한대로 적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편하고 익숙한대로 찾아가니
그것의 해방구로 세명의 여인을 찾았지만 만족하지 못해 탐닉과 중독에 빠진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받는 순간 머물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좋겠지만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남성들이.... 보는 것에 악하죠. 저는 지금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니다. 목사님 나 좀 봐요 하면
가슴이 더 뛰니다. 나귀턱빠로 천명을 죽인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당신의 말에 빠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성들도 보는 것에 가슴이 뛰니다. 별일 없어도 백화점을 갑니다. 살게 필요없는데도 그냥
갑니다. 신상품의 임대앞에 지름신이 임하여 카드를 지르는 총동구매의 영이 한국에서는
강력하더라구요.

아담의 자손이기때문에 누구나 보암직하다고 한... 안목의 정욕이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합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안목의 정욕으로 살진 않았겠죠... 나도모르는 사이에 침식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포도밭에 간다부터해서 사자를 죽인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포도밭에가서 포도주도 먹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찾으며 2가지 규약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을때 사람은
타락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안의 파워를 믿었던 것이 당연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구요. 의지할만한 자기 주먹을 가졌습니다. 하나라도
믿을만한 백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한방이다. 한방 중요하죠.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한방.....처럼 우리는 한방이 없으면 열등감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 열등감이 있습니다. 돈, 권세, 학벌, 직장이 없어서요...
아닌거처럼 이자리에 앉아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왼쪽 사람 얼굴을 보면 열등감이
있어보이나요? 다 우린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한방을 터뜨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기도, 예배, 목장 모임, 쿠페, 텅크트립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한방이 안터지면 서운해하고 무슨재미로사냐 하면서 맛있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을 답답해 하시지는 않나요? 내가 이 정도는 되야한다면 가서 자기 입맛대로 살고 내가 가고싶은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음란, 성공의 우상이 지뢰처럼 깔려있는 곳에서 딱 걸리는 순간 머리가 밀리는 겁니다.

삼손도 그 덫에 걸리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던 드릴라가 자신을 팔아 넘깁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이런 분과 살고 계십니까?

드릴라를 보면서 사단에게 배울것은 사단은 끈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약점으로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죄의 뿌리가 여러분 안의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회개하고 회복했지만 또 넘어지듯 삼손의 영적 신앙의 힘이 밀렸습니다. 그러니 머리털이 밀립니다.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 머리털이 밀리는지도 모르고 밀리는겁니다.

삼손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선발되었지만 삭발당한 그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삼손이 가진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머리털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모태신앙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거야 라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짓된 안정감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나지 않은 사람, 은혜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는 위험한 곳입니다. 교회를 오래다니고 행세하면서 적용은 하지 않고 적응을 하니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머리가 밀렸구나).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문화를 즐긴 컬처크리스천입니다.

삼손이 믿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머리가 밀리가 눈이 뻗히고...자기가 보는데로 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가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의 현 상태인 겁니다.

저도 머리털이 밀리고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의 영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리깡을 들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크게 쓰임 받아야 겠다 하면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모양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영국생활은 오전엔 물류창고 청소, 오후엔 학교 청소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자존감과 소명은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인정, 성공중독이었다는 것을 청소 일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를 영국으로 부르시더니 삼손처럼 머리를 미시고 멧돌처럼 일을 하고 쳇바퀴 돌리시네요...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장소는 기도하는 골방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날마다 저의 교만은 밀대로 밀고 인정중독에 걸려있던 저의 중독은 걸레로 훑치며 회개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김목사야 내가 너를 사람을 개끗케 하는 청소부가 되게 하겠다... 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영혼이 청소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학업과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청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을 마무리 하고 이민목회자로 들어간 호주의 많은 성도들이 생계를 위해서 청소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체휼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 삶을 안정감 있게 변화시키시려고 이 직장을 허락하셨구나)

2. 사명에 이끌리면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이 돌아온다는 보장도 아니구요... 하나님이 우리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할수 있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성경원문은 제발 제발 도와주소서 라는 삼손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인생이 밀리면 한번만 도와주세요 한번만 함께해주세요.. 영치 불구하고 그런 히든카드 기도를 내놓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썼던 이카드를 삼손이 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시겠어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고 다듬어서 쓰십니다. 못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세요.

삼손이 나귀턱뼈로 천명을 죽이고 너스레 떨어뜨립니다. 사람이 참 숫자에 약합니다. 자기가 최고인줄 알때 하나님이 그를 목말라 죽게 만드시는데 살려달라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하나님이 터트린 우물로 갈증을 해소해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턱뼈로 천명 죽인 것으로 은혜롭게 안끝나고 하나님 영광 다가리는 오늘 말씀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위해 수고한 것만 카운트 하십니다.

너 살면서 머하고 왔니....하나님이 물었을때 삼손이 할말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별볼일 없는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한 시간... 변곡점에서 하나님을 찾은 모습은 곧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위해 이십년 전에 기도 했지만 이십년 후에는 사명을 이루어달리는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리바이별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구요 성경말씀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던것도 부흥입니다. 영적수맥을 파는 것이 영적회복의 첫단추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기도였다면 기도, 말씀이었다면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심으로 그의 눈은 멀었으나 사명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있다면 아직 끝나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이 진로입니다. 사명을 이루기위해 여러분의 환경은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증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입니다. 살았을때보다 죽었을때 그가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사명의 눈을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보다는 육신의 눈을 뜨며 삽니다. 그것은 자녀, 직장, 학벌, 결혼 등 일수 있습니다.

회복의 목적은 행복이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다시 살려주셔야 합니까? 나의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저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않으십니까? 하십니다. 삼손의 목마름은 해소해주셨지만..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예수님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적용질문]

아내에게 온 유방암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이 없어 목회할수 없다고 한번만 위기가 넘어가게 해달라고 삼손처럼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건강, 목회, 미래를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들교회 목회자 세미나 통해 다시 일어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잇는 것은? 공동체, 말씀은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면 묻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달려가는 내생각으로 대부분 진행합니다....)